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따뜻하며, 며칠마다 묘한 꿈을 꾸고, 가족들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고, 동료의 모함에 치를 떨고, 자신의 행동과 오늘 한 일을 일기에 기록하며, 자기 몸이 아파도 가족과 나라를 더 걱정 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평범한 이웃 같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어 봤을 것이다. 광장에 세워진 동상은 물론 그에 관한 책과 영화, 사극 등을 통하여.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나에겐 그저 영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의 혼과 생각, 지식이 담긴 일기를 통해 용감하게 싸우던 장군이 아닌, 인간미가 담긴 ‘충무공 이순신’의 ‘倭亂(왜란)’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담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욱 난중일기를 돋보이게 해주었다는 것을 나는 책을 정독하며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준비를 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이다. 전쟁 중이든 아니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몇 시간 동안 군사적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간간히 순찰과 무기 제작, 점검을 하셨으니 강한 정신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섬세함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의 날씨와 전세(戰勢)는 물론, 누구를 만났는가와 무엇을 먹었는지, 몸 상태가 어떠한는지, 부하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등 장군님은 이 모든 것을 꼼꼼하고 부족함 없이 일기에 채워가고 있었다. 나는 장군님이 문무에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한다.

‘난중일기’에서 나의 눈길을 끌었던 점은 이순신 장군이 그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었다.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가족에 대한 효심이 더욱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서는 편지로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던 그는 소식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무척 답답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에게 1597년은 무척이나 시련의 해였다. 옥살이를 마치고 백의종군하던 시절, 그의 어머니와 아들 ‘면’을 잃게 된 것이다. 그때의 심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읽는 이도 슬픔에 젖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며 지냈다고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죽기 전엔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다. 1598년 11월 19일 일어난 노량 해전에서 장군님이 총을 맞고 전사하기 전 남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명언은 죽기 전에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지도력, 따뜻한 마음씨와 효심, 충성심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갖춘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의 영혼과 생각을 담아놓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의 진정한 삶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